

# 김승옥 소설의 ‘개인’ 연구\*

김미영\*\*

## ■ 국문요약 ■

김승옥 소설의 새로움의 요체는 개인의 발견과 감수성의 혁명에 있다. 이 논문은 김승옥 소설이 발견한 개인의 정확한 함의가 무엇인지를 레비나스의 주체론에 입각하여 고찰해 본 것이다. 한국문단에서 60년대를 대표하는 김승옥 소설에 등장하는 개인은 전쟁으로 인한 일상성의 상실과 허무주의의 팽배 속에서 관념의 눈으로 현실을 재단하려 했던 50년대 소설 속 주체로부터, 자본주의적 경제관념으로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70년대 소설 속 주체로 옮겨가는 도정의 주체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김승옥 소설이 발견한 개인은 전후문학의 관념에서 70년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열기라는 현실로 내려앉기 위해 꺾어야 했던 주체분열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지한 주체라 할 수 있다. 익명적 존재에서 홀로서기의 주체를 거쳐 김승옥 소설의 개인은 종국적으로 에로스를 매개로 타자와의 합일을 통해 존재의 초월을 갈망하는 주체로 발전한다. 구체적으로 김승옥 소설이 발견한 개인성의 의미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신체적 존재이자 의식의 주체가 익명적 존재 사건으로부터 출현하여(〈서울, 1964년 겨울〉), 홀로서기의 주체화(〈무진기행〉)를 거쳐, 타자와의 관계맺기를 통해 자기 전제성의 극복(〈서울의 달빛 0장〉)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여준다. 김승옥 소설이 발견한 ‘개인’은 한마디로 존재의多元성을 인식해 가는 도정에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진정한 삶의 부재로부터 부단한 초월을 꿈꾼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이란 ‘존재’에서 ‘존재자’로의 이행, 그리고 ‘존재자’에서 ‘타자’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김승옥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끝내 이 과정에 실패하고 있지만, 작가는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현대문명 속에서 이기적 개인들이 타자로서의 비월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타적 개인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주체들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로써 60년대 김승옥 문학은 전후문학의 냉소와 절망을 극복하고 70년대 성장과 민주화를 향해 ‘상승하는 주체로서 개인’을 구성해 내려 했다.

주제어: 김승옥, 산문시대, 개인, 존재, 주체, 타자,

###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개인’의 세 가지 층위—존재, 주체, 타자 지향의 주체
3. 김승옥 소설과 ‘개인’
4. 논의를 마치며

\* 이 논문은 숭실대 2007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 1. 글을 시작하며

60년대 문학을 논할 때 김승옥 소설이 첫 자리에 오는 것은 그의 소설이 갖는 ‘새로움’ 때문이다. 기왕의 논의들<sup>1)</sup>은 김승옥 문학의 새로움을 ‘개인의 발견’<sup>2)</sup>과 ‘감수성의 혁명’<sup>3)</sup>으로 정리해 왔다. 이 글은 김승옥 소설의 두 가지 특장 가운데 첫 번째 것인 ‘개인의 발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갖는 사회사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김승옥 소설의 특질로 ‘개인의 발견’을 가장 먼저 지목한 평론가는 김현이다. 김현은 김승옥 소설이 발견한 개인이란 “의식 내부에 조작된 세계를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김승옥 문학에 나타난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세계를 살아가거나, 아니면 가상의 관념 속에서 허우적대는 재래의 인간형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서, 당위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당위와 현실이 부딪치는 지점에서 살아가는 ‘개성 있는 존재로서의 개인’이라고 평하였다.<sup>4)</sup> 김현이 김승옥 문학이 발견한 개인의 성격을 논했다면, 천이두는 그와 더불어 김승옥 문학의 문체적인 특성까지 지적한다. 천이두는 김승옥을 먼저 ‘60년대 문학’의 기수라 칭하고, 김승옥의 문학이 보유한 전 시대문학과 대비되는 독창성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김승옥의 문학은 “1950년대 문학의 강력한 이슈 혹은 교훈주의에의 집착에서 벗어나, 질은 에피큐리언적 면모를 보인다.” 둘째, 김승옥의 문학은 “경화된 엄숙주의에서 비롯된 긴장된 문장의 톤을 완전히 벗어났다.” 김승옥의 문학에 관한 천이두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인간의 숙명적 조건으로서의 고독을 추상적 서술이 아닌, 존재현장의 재현을 통해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sup>5)</sup>

김승옥 문학에 대한 김현과 천이두의 판단은 “개인의 실존에 대한 인식의 새로움”으로 모아질 수 있다. 이들의 평가는 김승옥 문학 전체를 역사적이고도 구체적인 시간의 질서를 추상해 버리고 근본적으로 현대를 공간화한 패러다임인 실존주의로 환원시킬 위험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는 김승옥 문학이 가진 풍부함 혹은 다층성의 한 측면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왜냐

- 
- 1) 김승옥 소설에 관한 주목할만한 성과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아세아』창간호, 1969)  
 김 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현대문학』, 1966.3)  
 유종호, 『슬픈 도회의 어법』, 『한국소설문학대계 45』(동아출판사, 1995)  
 정현기, 『안개의 수군거림과 愛慾의 시대를 지켜본 작가』, 『오늘의 한국문학 33인선』(양우당, 1989)  
 김치수, 『反치主義 文學과 그 傳統』, 『한국소설의 공간』(열화당, 1976)  
 \_\_\_\_\_, 『6.25와 소설의 내적형식』, 『우리소설과의 만남』(민음사, 1986)  
 김윤식, 정호웅, 『4.19체험과 그 소설적 변용양상』, 한국소설사 (예하, 1993)  
 천이두, 『존재로서의 고독-김승옥“서울 1964년 겨울”』, 『문학과 시대』(문지사, 1982)  
 염무웅, 『5, 60년대 남한문학의 민족문학적 위치』, 『창작과 비평』(1992. 겨울)  
 류보선, 『개인과 사회의 대립적 인식과 그 의미』, 『한국현대작가연구』(문학사상사, 1991)
  - 2) 김 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현대문학』, 1966.3)
  - 3)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아세아』창간호, 1969)
  - 4) 김 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김현문학전집2』(문학과 지성사, 1991) pp.385~6.
  - 5) 천이두, 『존재로서의 고독』, 『문학과 시대』(문학과 지성사, 1982) p.62.

하면 김승옥의 문학은 근원적으로 6·25라는 전쟁 체험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서구의 실존주의는 양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긴 인간 이성에 대한 불신과 물질문명(근대화 및 현대화)이 가져온 가공할만한 파괴력에 대한 불안·공포·절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승옥 소설은 그 속에서의 삶이 가진 우연성과 부조리로부터 개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일종의 문학적 사유에 해당한다. 원래 우리의 전후문학(戰後文學)은 구라파의 실존주의 철학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sup>6)</sup> 예컨대, 손창섭의 병의식(病意識) 세계, 장용학의 인간적 결단, 김성환의 풍자적 자세, 오상원의 절망적 자아, 선우휘의 넓은 광장에의 시점 등은 삶의 지표를 잃어버린 정신적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신의 험겨운 선택만을 강요받던 시대의 형상화로 해석될 수 있다. 크게 보아 김승옥의 작품 역시, 가치의 중심이나 지향점이 사라진 시대에 '없음(Nichs)' 앞에 선 자아의 불안과 방황을 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적 실존주의 방법적 탐색이라 할 수 있다.<sup>7)</sup> 김승옥의 소설은 50년대 문학과는 뚜렷이 변별되는 60년대 문학의 정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전후문학이기도 하다. 이는 그의 작품 〈생명연습〉과 〈무진기행〉 등이 전쟁에서 비롯된 가족관계의 재편과 그에 따른 청년주체의 왜곡된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또한 김승옥의 문학은 전후의 실존주의 문학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 그러하다. 손창섭의 《비오는 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황의 절대적인 압력을 선행적인 것으로 수락해 버린 수동형의 인물이라면, 김승옥의 소설들에 나타난 인물들은 의식 내부의 섬세한 조작을 통해 자기세계를 형성하여 상황 속에 아무런 저항 없이 짓눌려 생활하는 수동인(受動人)에 대한 항변을 보여준다.<sup>9)</sup> 전후문학의 '실존주의적 개인'과 김승옥 소설의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그의 문학이 산출된 시대, 즉, 전후 상황의 이어짐 속에서도 조국의 근대화라는 정책의 파행적 추구와 4·19혁명의 체험 등 일차적으로는 역사적 발전 단계의 진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후소설과는 다른, 김승옥 소설이 발견한 독특한 개인은 그의 문학이 갖는 李箱 문학과는 친연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김승옥 문학을 논의할 때 『산문시대(散文時代)』의 존재는 빠뜨릴 수 없는 항이다. 그리고 『산문시대』와 이상(李箱)의 인연은 특별하다. 1962년 여름, 김승옥, 김현, 최하림, 염무웅 등은 김동리, 조연현 등의 상투적인 프로문학에 대해 아마추어리즘을 표방하면서,

6) 정현기, 『문학비평의 충격적 休止期』, 김윤식·김우중 외,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 1989) pp.366~367.

7) 김승옥이 주로 활동했던 60년대에 양리 시몽의 『현대작가의 사상과 문학』(신양사, 1960)과 알바레스의 『20세기의 지적 모험』(을유문화사, 1959), 『20세기 문학의 결산』(신양사, 1960) 등이 번역되어 나왔으며, 각종 잡지에 실존철학의 사상들이 번역 소개되었다. 작가의식의 기저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가 작가의 독서 편력일 터인데, 작가와의 전화 인터뷰에 의하면, 김승옥은 당시 까뮈의 『전락』과 사르트르의 『구토』 등 서구의 실존주의적인 문학을 주로 탐독했다 한다.

8) 필자가 96년 11월3일 김승옥과 행한 전화인터뷰에서 작가 스스로 자신의 문학을 전후문학으로 규정하기도 한 바 있다. 김승옥은 손창섭, 장용학 등의 문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戰中文學이며, 자신의 문학이야말로 戰後文學이라고 말하였다.

9) 김현, 앞의 글, pp.383~386.

동인지 『散文時代』를 창간하였다.<sup>10)</sup> 이들은 그 제1호를 李箱의 영전에 바친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1)</sup> 실제 창간 준비과정에서 동인지의 제목을 李箱의 시『오감도(鳥瞰圖)』를 연상케 하는 『질주(疾走)』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sup>12)</sup> 이러한 사실은 김승옥 문학과 이상 문학과의 연관성을 시사해 준다. 이는 마치 전후비평에서 이어령이,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등 문협 정통파들은 현대인의 숙명을 이해하지 못한 채 토속적 세계에 빠져 있는 지방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고, 李箱을 보편주의자로 내세워 ‘우상의 파괴’를 단행코자 했던 사실<sup>13)</sup>을 연상시킨다. 전후세대는 태평양전쟁과 6.25를 거치면서 세계사적 보편체험 속에서 성장하였다. 이들은 민족에 대한 자의식보다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인식이 앞선 세대였다. 그들에게 있어 李箱 문학은 자신들의 세대의식을 대변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었다.<sup>14)</sup> 『산문시대』의 동인들은 거개가 외국문학 전공자들로, 서구적 감각의 자유주의 사상을 ‘대학교’라는 제도교육을 통해 익혀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불란서에서 사르트르가 주관한 『현대』지를 의식하여 ‘詩精神에 의한 散文’이라는 주제로, “의식이 포착한 것만을 집요하게 묘사함으로써 조리 있는 스토리일 수 없는 生の 內面을 보여주는 작품창작”을 목표로 『산문시대』를 창간하였던 것이다. 『散文時代』의 창간 정신의 근저에는 관습과 제도에 저항하고, 언어의식에 있어서도 실험정신을 유감 없이 발휘한 李箱문학이 존재하고 있었다.<sup>15)</sup> “천년을 갈 것 같은 어두움 속에서……이카루스, 어쩌면 절망적인 탈출이 없는 모든 자의 언어와 결별하면서……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욕망을 처리하기 위해 집을 나가는 蕩子(蕩子)의 의지를 표방한 『散文時代』의 창간사<sup>16)</sup>는 이를 웅변한다.

최근에도 김승옥 소설에 관한 연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왔다. 예컨대, 서사구조, 17) 문체<sup>18)</sup> 등의 형식미학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인물 및 주체구성 측면의 연구,<sup>19)</sup> 시공간

10) 『散文時代』는 1962년 6월에 창간호를 내고 1964년 9월까지 반년간으로 5호까지 나왔다, 『산문시대』는 창간호 이후 문학 잡지적인 개방성을 표방했으나 기본적으로 서울대 문리대생을 중심으로 한 동인지의 성격을 띤다. 시를 배제하고 소설, 희곡, 평론, 변안물 등 산문만을 실었다. 5호때 동인은 姜好武, 郭光秀, 金成一, 金承鈺, 金治洙, 김현, 등 이상 10명이었다. 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한국현대문학전집 38』(삼성출판사, 1978) pp.386~7.

11) 散文同人 편, 『散文時代』창간호 (가회출판사, 1962)

12) 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한국현대문학전집 38』(삼성출판사, 1978) p.404.

13) 이어령, 『우상의 파괴』, 한국일보 (1956.5.5) 『민족적 특성과 인류적 보편성』, 『문학예술』(1958.8)

14) 전후세대의 문인들은 이렇게 한차레씩 李箱 문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 이유는 李箱문학이 ‘19세기식’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모든 前근대적 관습과 제도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했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해 서구적 현대문명 및 그 철학과 문학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바 있는 전후세대 문학인들에게 서양화되고 보편화된 감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바로 李箱 문학이었던 것이다. 이봉래, 『신세대론』, 『문학예술』(1956.4)

15) 김승옥, 앞의 글, pp.404~408.

16) 산문동인 편, 『散文時代』, 제1호 (1962. 여름, 가회출판사) p.1.

17) 이정란, 『김승옥 소설의 서술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87.

18) 김 학 『글쓰기의 영도』, 『문학동네』, 1996. 여름.

19) 박진영, 『김승옥 소설의 주체 구성 연구』, 고려대 석사, 2000.

이호규, 『1960년대 소설의 주체생산 연구』, 연세대 박사, 1999.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 석사, 2002.

연구,<sup>20)</sup> 문화론적 시각에서의 소통 연구<sup>21)</sup> 등이 그러하다. 흔히 김승옥의 작품세계를 전기 단편의 심미성과 후기 장편의 통속성으로 이분화시켜 이해하는데, 이 양자를 관통하는 김승옥 소설의 특징은 여전히 개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자기세계의 발견과 구축'이라는 김승옥 문학의 핵심을 재조명하지 않고서는 그의 문학에 대한 논의들은 부분적이거나 혹은 이미 이루어진 논의의 지평을 맴도는 수준이기 쉽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김승옥 문학의 핵심인 '개인(성)의 발견'을 좀 더 세밀하게 천착해 보려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김승옥 소설이 발견한 개인, 즉, 소설 속 주체는 일상성을 상실하여 관념으로 눈앞의 현실을 재단하려는 경향이 팽배했던 1950년대 소설 속 주체와 또 현실에 대해 눈뜨기 시작한 1970년대 소설 속 주체 사이에서 관념이 현실로 내려앉기 위해 꺾어야 했던 주체분열의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는 李箱 문학 속 주체의 모습이기도 하거니와,<sup>22)</sup> 현실에 내재하는 모더니즘적 계기들을 다룬 모든 소설에 공통되는 특징<sup>23)</sup>이기도 하다. 이 글은 가설의 검증을 위해 레비나스의 주체이론을 방법론으로 원용하려 한다. 김승옥 소설들은 현상학적 환원을 거쳐 형성된 내면의식과 그 내면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주로 형상화하고 있다면, 실존주의에의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주체가 타자에 대응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레비나스의 독특한 주체 이론은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개인'의 특징을 해명하는 데 좋은 논리적 배경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면, 이 글은 김승옥의 대표작 〈서울, 1964 겨울〉(『思想界』1964.6)과 〈霧津紀行〉(『思想界』1964. 10), 〈서울의 달빛 0장〉(『文學思想』1977.7)을 분석하여, 서사 속 주인공들이 레비나스 식으로 표현하면, '존재'에서 '홀로서기의 주체'로, 나아가 '타자를 향한 주체'로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김승옥 문학이 발견한 '개인'의 면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 한다.

## 2. '개인'의 세 가지 층위 - 존재, 주체, 타자 지향의 주체

이 글의 이론적 토대인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의 주체 개념은 우선, 하나의 이념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고 포괄해 버리는 전체성의 이념이나 철학에 대항하여, 어떤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평화의 논리와 철학의 구축 위에서 있다. '타자성(他者性)의 철학'을 제창한 레비나스는 유대인 출신의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는 참혹한 2차 대전과 국가 사회주의의 비인간성을 경험하였기에 데카르트 이후 서양철학을 지배해

20) 한혜원, 「김승옥 소설 연구:공간과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 1998.

21) 안혜련, 「김승옥 소군,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화자의 성격 연구」, 서울대 석사, 1999.

진정석, 설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전남대 박사, 1999.

이정숙, 「김승옥 소설의 소통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 2004.

22) 이에 대해서는 문홍술, 「이상문학에 나타난 주체분열과 반담론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91) 참조.

23) 유진 린, 김병익 역, 『마르크스주의와 모더니즘』(문학과 지성사, 1986) pp.56~50.

온 주체성의 이념을 비판하는 데서 자신의 논의를 출발시킨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자아론적 존재론’은 헤겔과 칸트에 의해 계승되었고, 후설에 이르러 주체론은 자아 혹은 주체의 절대성이 더욱 강조된다. 데카르트와 헤겔, 칸트로 이어진 주체론에 토대한 근대 문화는 계몽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유와 자율의 주체로서 확립하는 한편 주변세계를 ‘탈신법화(배버)’함으로써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다. 그 기초 위에 ‘효율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 근대는 사회에 대한 각종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레비나스의 논의는 근대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에 따르면, 근대는 인간 존재를 둘러싼 근원으로부터의 이탈과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통제수단의 강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는 자아중심적인 근대 철학이 진리 발견이란 명목으로 은폐하고 있는 힘에 대한 의지를 폭로한다. 그가 보기에 근대의 자기 충족성은 의식이 자아형성시 필연적으로 겪는 오인(méconnaissance)에서 생겨난 환상에 불과하다. 그는 주체의 탈중심화를 자아의 독립성과 타자성의 동시 보장에서 찾음으로써, 자아중심의 전체성의 철학에 반론을 제기한다.<sup>24)</sup> 하이데거까지의 서양철학들은 ‘동일자에 의한 타자의 지배’를 겨냥한 ‘자아론적 존재론’이었고, 이의 지양은 ‘타자성의 철학’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sup>25)</sup>

레비나스의 존재론은 ‘존재’, ‘주체’, ‘타자성의 주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존재의 근원적, 일차적 의미는 ‘존재자 없는 존재’, ‘주체 이전의 존재’, ‘익명적 존재(il y a)’를 통해 드러난다.<sup>26)</sup> 어둠이 無나 非存在가 아니며, 불면상태의 깨어있음이 주체와 대상, 안과 밖,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없는 현존 자체, 그저 그렇게 있는 존재 자체에 싸여 있을 따름인 상태인데, 이는 동사로서의 ‘존재’이다. 즉, 레비나스의 ‘존재’는 주체가 없는 존재이며, 그 자신으로(en soi) 존재하는 가운데 인격이 결여되어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주체는 무의미한 깨어 있음 자체에서 자신을 상실한다. 그러나 주체는 깨어있음을 몸으로 스스로 체험하는 존재 경험의 담지자이다. 다시 말해, 주체는 자기 상실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존재’에 해당한다.

레비나스는 주체의 출현과정, 즉, ‘존재한다’는 동사로부터 ‘존재자’라는 명사로의 전환과정을 ‘홀로서기’라 명명한다. ‘홀로서기’의 ‘주체’는 익명성으로부터 초월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 유지 욕망을 실현하는 주체이다. 주체는 먼저 밖에서 안으로 운동한다. 안으로의 운동, 즉, 내재성이 성립되면 다음, 안에서 밖으로 초월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주체는 존재의 혼돈 속에서 명사적인(실체적인) 존재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실현을 위해 밖으로의 초월을 시도할 수 있다. 이때, 의식 주체를 통한 존재의 극복은 ‘여기’와 ‘지금’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주체’는 ‘익명성’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동시에 독립적인 개체로서 ‘여기’에 자신을 정립하는 자이다. 예를 들어 의식이 여기에 자리 잡기 위한 구체적인 가능조건은 신체이다. ‘여기’는 주체의 근원이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자신에 바탕을 둔 존재자라는 사실을 지칭한다. ‘주체’

24) 강영안, 『레비나스철학에서 주체성과 타자』, 『후설과 현대철학』, 한국현상학회 편, (서광사, 1990)

25) 강영안, 『레비나스 他者性的의 哲學』,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편, (1995. 여름) pp.147~148.

26)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pp.38~41.

는 '존재'의 중립적인 시간성에 대항하여 스스로 시작함으로써 '순간'을 만들어 낸다. '지금' 즉, 순간으로서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관계하기 전에 주체가 자기 자신에 현존하는 순간이다. '순간으로서의 지금'은 곧 주체의 실현, 그 자체이다.

주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옴으로써 자기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주체의 자기 동일성은 내재성, 즉, 자기 자신과의 친숙성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 동일성은 실체 속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자기를 확인할 때 성립되는 역동적 과정이 된다. 익명적인 순수 존재에 맞서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행위를 통해 주체는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다. 여기서 레비나스는 근원적인 자유를 설명한다. 근원적인 자유는 외적 제한이나 제약으로부터의 독립성 혹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의 법칙을 설정하는 자율성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다. 주체로서의 존재자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자유는 존재의 익명성 속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이다.<sup>27)</sup>

존재자가 자기 자신에 몰두해 있는 방식이 곧 주체의 물질성(la materialite sujet)이다. 세계 안에서 주체의 일차적인 존재 방식은 향유(jouissance)인 바, 인식, 과학, 노동, 소유, 이 모든 것은 세계를 향유하는 방식이다. 향유는 자기성의 테두리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고, 주체는 여전히 존재 이편에 갇혀 있다. 이러한 '주체가 타자'를 체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형식은 '죽음'과 '미래'다. 죽음은 존재자에게 있어 더 이상이 주체가 주체가 이념을, 존재의 주인이 이념을 경험케 하는 모든 '가능성의 불가능함'의 체험이다. 레비나스에게 있어 죽음은 절대 타자,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 내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론적 사건이다. '존재자'로 홀로 선 주체의 고독, 존재의 전체성은 고통 속에 다가온 죽음을 통해 틈을 발견한다. 이를 통해 존재자는 다원적(pluraliste)이란 사실이 입증된다. 이는 다수의 존재자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은 나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죽음은 나와 교류할 수 있는 공통의 존재 기반이 없다. 즉, 그것은 제2의 자아(alter ego)가 아니고, 전적으로 다른 '타자'의 존재를 의미한다. '타자'의 존재는 나의 내면성과 구별되는 외재성이자 타자성이다.<sup>28)</sup> 외재성을 본질로 하는 '미래'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타자이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미래는 동일자로 흡수될 수 없는 타자가 존재 속의 전혀 다른 차원으로 투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죽음의 엄습, 어떤 방식으로든 손에 거머질 수 없는 미래, 인격적인 타인의 존재 등은 나의 틀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존재인 타자들이다.

동일성의 원리에 근거한 주체의 전체성의 논리, 혹은 권력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원초적 경험을 레비나스는 에로스, 즉, 性愛에서 찾는다.<sup>29)</sup> 사랑은 언어와 더불어 타자와 관계할 수 있는 방식이며, 性관계는 나로 환원될 수 없는 타자의 타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다. 에로스를 통해 타자의 존재는 나의 자발적인 존재 확립과 무한한 자기보존 욕구에 도덕적 한계를 설정하게 되고, 윤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타자의 발견, 즉, 타자로부터의 분리는 개별적인 자기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이며, 진정한 주체성은 타인의 존재를 자기 안으로 받

27) 레비나스, 앞의 책, p.34.

28) 강영안, 『존재, 주체, 타자-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관하여』, 『세계의 문학』(1992. 겨울) pp.214~220.

29) 레비나스, 앞의 책, pp.98~112.

아들이고 타인과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때 가능해진다. 자기중심적인 의미 부여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은 타자성의 인정을 통해 극복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타인을 향한 초월의 대표적 예는 생산이다. 생산(출산)을 통해 시간은 무한성의 차원, 절대적 미래, 폭력과 죽음에 맞서는 무한한 잉여의 차원을 확보할 수 있다. 아이는 '타자가 된 나(moi étranger a soi)'이다. 유한한 주체가 아버지가 됨으로써 타자와 타자의 미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레비나스의 현상학적 주체 이해에 기초하여 3, 4, 5장에서는 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무진기행〉, 〈서울의 달빛 0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김승옥은 196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生命練習〉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후, 『散文時代』에서 〈건(乾)〉(제1호, 1962. 여름), 〈환상수첩〉(제2호, 1962.10),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제4호, 1963.6), 〈사디리아시스-第1章 인식해 본 열다섯 개의 固定觀念〉(제5호, 1964.8) 등의 습작적 모습을 거쳐 〈무진기행〉(『思想界』, 1964.10), 〈서울, 1964년 겨울〉(『思想界』, 1965.6), 〈60年代式〉(『선데이서울』, 1968), 〈염소는 힘이 세다〉(『自由公論』, 1966), 〈서울의 달빛 0章〉(『文學想念』, 1977.7) 등 총 24편의 작품을 남겼다. 이들 가운데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서울의 달빛 0章〉은 그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뚜렷이 포착되는 작품들이다. 이 글은 〈서울, 1964년 겨울〉은 익명성의 단계, 즉, '존재'의 단계로, 〈무진기행〉은 '홀로서기로서의 주체'의 단계로, 〈서울의 달빛 0章〉은 주체의 '타자성 인식'의 단계임을 보이고, 이로써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196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진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김승옥 소설과 '개인'

#### 3-1. 익명적 존재(il y a)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에 등장하는 '개인'은 진정한 삶의 不在로 인해 무의미한 유희적 욕망 속으로 숨어버리는 '익명적 존재(il y a)'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대학원생 '안'과 구청 병무과 직원인 '나'는 한마디로 익명적인 혼돈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다. 삶이 내용을 상실할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개인에게 남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뿐이다. 이러한 단적인 존재를 레비나스는 '존재(il y a)'라고 부른다. 서적외판원인 '사내' 역시 그의 존재근거였던 아내를 상실한 후, '존재자 없는 존재' 혹은 단지 '동사로서의 존재'의 상태에 처한다. 과거에 '사내'는 '아내'라는 타자의 타자로 생활세계를 향유하는 주체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타자(아내)의 不在로 인해 주체성이 부정되고 창문 없는 단자의 세계 속에 갇혀 있다. 이러한 '안'과 '나'와 '사내'에게는 타자의 타자성을 확인하는 방식인 대화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것이 이들 간의 대화가 본질적으로 다이얼로그가 아닌 모놀

로그가 되고 마는 이유이고, 30) 자주 중단되는 까닭이다. 31)

이러한 '존재'들에게 타인은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며, 나눔의 대상도 아니다. 이들에게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은 언어유희를 통해 어떠한 사실이나 상황을 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인가, 즉, 나만의 소유인가를 끊임없이 회의한다. 자기만이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며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들이 발가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놓고 찢절매는, 말하자면 타인의 시선, 혹은 습관에 의해서 얽매인다. 이러한 존재들은 응축된 상태에서 풀려나오는 밤과 거리의 해방을, 그 익명성을 사랑한다.

〈서울, 1964년 겨울〉은 등장인물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세계만을 영화처럼<sup>32)</sup> 정확히 묘사해내고 있어, 이 작품의 문장은 인물의 내면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경우 서적외판원 '사내'의 자살을 예감하지 못하였으나, '안'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내의 자살을 알면서 방치한 적이 되었을 때, '안'은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 이었습니다"고 말한다.<sup>33)</sup> 이러한 '안'의 태도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뿐 아니라, 타자를 자신의 동일성 속에서 파악하는 태도이다. '안'의 세계에는 자신의 시선과 관점만이 존재한다. 타자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동일성의 세계로 환원해 버리는 '안'의 태도는 화재현장을 목격하는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불빛에 비쳐 무안당한 사람처럼 붉은 얼굴로, 정물처럼 서서" 화재를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끼어 '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재는 김형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아저씨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돼 버립니다…… 화재는……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 화재는 오직 화재 자신의 것입니다."<sup>34)</sup> 다음 인용문은 이들 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미끄러짐을 보여준다.

"김형, 우리는 분명 스물다섯 살 찌리죠?"

"난 분명 그렇습니다"

"나두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 집니다"

"뭐가요?"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30) 이는 이 작품의 가장 유명한 대목, 즉 '안'과 '나'의 움직임 혹은 꿈틀거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언어유희 장면에서 잘 드러나 있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恩想界』(1965.6) pp.403~406.

31) '안'과 '나'가 만나 '사내'가 가세하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두 번 斷續되고(p.402와 p.404) '사내'와의 합석 이후 다시 한번 斷續된다. (p.409)

32) 이 작품에서 김승옥은 영화에 대한 언급을 3군데서 하고 있다. '안'과 '나', '사내'의 거리 배회나 여관을 찾는 행위 등을 기본적으로 영화 속 이야기에 비유하고 있어 그것이 유희적 태도, 즉 무상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p.407, p.416), 또 그들이 헤메고 다니는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좁고 한산했다"고 묘사하고 있다.(p.411)

33) 김승옥, 앞의 작품, p.417.

34) 김승옥, 앞의 작품, pp.412~3.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어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sup>35)</sup>

이렇듯 자기 동일성의 세계 속에 갇힌 개인인 ‘안’은 진정한 삶의 不在와 무상적 행위와의 탐닉이 초래할 결과와 그러한 삶의 지속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그러나 ‘안’의 그 같은 불안은 또 다른 자기 동일성의 세계 속에 갇힌 존재인 ‘나’와 결코 공감되지 못한 채, ‘안’만의 소유가 되어 버린다. 마지막 대목에서 ‘안’의 탄식과 ‘안’의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하는 ‘나’의 희극적인 모습은 각자가 자기의 문법에, 자기의 세계 속에 철저히 갇혀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 3-2. 홀로서기의 주체 -〈무진기행(霧津紀行)〉

김승옥의 〈霧津紀行〉은 〈서울, 1964년 겨울〉의 익명적 ‘존재’들이 ‘홀로서기의 주체’가 된 이후의 풍경을 보여준다. 〈무진기행〉은 주인공 ‘윤희중’이 제약회사 전무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고향 무진을 찾아왔다 돌아가기까지의 이야기를 에세이풍의 기행문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어 작품 전체가 내면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내면의 획득은 무엇인가? 내면성은 타자와의 거리가 존재함에서 나온다. 내 존재의 외부를 인정할 때 나의 내면도 구성될 수 있다. 자아는 자신을 엄습하고 자신을 사로잡는 원심력적인 전체성과 대항하여 자신을 세계의 주인으로 삼음으로써 구심적인 전체성의 중심이 되는데, 이때 타자가 타자로서 나에게 환원될 수 없는 ‘외재성’을 지남은 내가 나로서 독립성을 가짐을 의미하고, ‘존재’가 ‘주체’로 홀로 섰음을 뜻한다. 소설에서 내면묘사의 일인칭 초점화자의 설정은 그것의 형식적인 전화라 할 수 있다.

레비나스 식으로 말하면 ‘그저 그렇게 있음’인 ‘존재’는 모든 것의 의미를 無로 환원하고, 그 자체 아무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은, 그저 있음인 현실이다. 그것은 두려움 혹은 공포로서 체험되고 자아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이러한 익명적인 존재사건의 근본은 ‘존재’가 ‘홀로선 실체’가 됨으로써 가능하다. 레비나스는 이것을 선택의 자유 이전의 자유, 근원적인 자유로 이해한다.<sup>36)</sup> 근원적인 자유의 긍정은 단지 자아의 행복뿐 아니라, 책임의 과제를 함축한다. 이때 자아가 짊어지는 책임은 타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자아는 존재를 자기 것으로 짊어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로 삼는다. 오직 자신만이 자기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sup>37)</sup> 때로는 이 책임이 자아에게 존재의 무거움으로 체험되고, 자아는 이 존재의 무거움을 벗어 던지려는 시도를 감행하게도 된다.

〈무진기행〉에서 ‘윤희중’의 무진 체험은 비교적 향유에 가깝다. 윤희중은 무진(霧津)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대곤” 할 수 있었던

35) 김승옥, 앞의 작품, p.417.

36) 강영안, <레비나스의 ‘평화의 형이상학’- 일인칭 관점에서 본 평화의 문제>

37) 레비나스, 앞의 책, pp.46~50.

것도 이 때문이다.<sup>38)</sup> 하인숙과의 성적 일탈과 술집 여자의 시체를 보며 느끼는 성욕이 그 예다. 역 광장에서 본 미친 여자를 포함하여 윤희중이 무진에서 만난 여자들은 모두 그에게 자신의 일부나, 혹은 예전의 자신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윤희중이 하인숙과의 정사 후 바다를 내다보면서 “나는 우리가 불교도(佛敎徒)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불교도라고 생각했다.”라고 반복적으로 술회하고 있는 대목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윤희중과 하인숙의 정사는 전혀 에로스적이지 않는데, 그 까닭은 前生이나 청년기의 자신과 동일인이거나 혹은 현재 자신의 분신에 해당하는 인물과의 에로스는 본질적으로 타자성을 지향하는 에로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진에서의 性愛는 향유는 향유이되, 타자의 타자성을 확인함으로써 주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에로스적 경험이기보다는 주체의 자기동일성 속에 갇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자아는 단지 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신체적인 결핍의 존재이고, 신체적인 결핍을 충족시킬 질료는 세계 속에 존재하므로 욕구의 존재로서 자아는 세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신체적 욕구로 인해 자아는 세계를 자신의 존재 실현의 바탕으로 수용한다. 자아의 욕구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며, 자기 확인의 근원적인 형식이자,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위한 세계와의 동화이다. 그것이 바로 향유인 바, 향유에서 세계와 인간의 일차적인 관계는 이성 또는 지성보다는 감성을 통해 체험된다.

한편, 세계는 그것의 무규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체의 삶을 위협하기도 한다. 주체는 세계의 불확정성을 제거하고 세계를 확실한 삶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즉 실천적 전체화를 위해 노동을 한다. 그것은 주로 무진과 대칭을 이루는 서울에서의 일들, 즉 “먼지 낀 도시에서의 바쁜 일과”(p.344)들이다. 그런데 실천적 전체화는 삶의 중심에 자아를 두는 것이다. 그것은 자아를 중심으로 모든 타자를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고 자신의 권력 아래 둔다. 이때 타자는 자아의 세계로 환원되고 자아는 타자를 재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실천적 전체화의 의지는 주체에게 있어 무진에서의 향유를 향유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무진에서 ‘윤희중’은 타인을 모두 속물로 생각하며,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에게 무위와 똑같은 무게 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윤희중’은 무진 사람들의 일상사를 목격하면서 “학교에 다닌다는 것,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사무소에 출근했다가 퇴근한다는 이 모든 것이 실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한다.(p.333) 또한 세무서장 趙를 묘사할 때 보인 모랄 감각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묘사에서는 둔감해진다.(p.334) 이 같은 사실은 무진이 여전히 혼돈의 세계이며, 꿈이나 잠과 같이 몽롱한 의식의 세계임을 뜻한다. 그것은 화투와 작부의 유행가의 세계이며, 미처 하얀색이 되지 못하고 뿌옇기 만만 ‘안개’의 세계이다. 무진이 안개로 유명한 곳임은 여기서 다시 작품 전체의 상징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세계는 〈환상수첩〉과 〈생명연습〉의 세계와 그리 멀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진기행〉에서 주체의 타자와의 합일 혹은 조화로운 관계에의 열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존재의 초월을 향한 열망은 생생하다. 6.25때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로 의용군

38) 김승옥, <霧津紀行>, 『恩想界』(1964.10) p.331.

징발과 국군 징병 모두를 피하고 골방에 갇혀 있을 때 윤희중은 자신은 “골방보다 전선을 택하고 싶어”(p.332) 하였다고 회상한다. 어머니는 그것을 아셨기에 일선의 친구가 내게 보내온 군사우편들을 나 몰래 찢어버리셨다. 지금의 나는 장인 영감이 자신의 전무 선출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호걸웃음을 짓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면서 “묘(어머니의 묘-필자주)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p.304)고 술회한다. 다음의 인용문에는 윤희중의 초월예의 열망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써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 도달 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데 홀려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sup>39)</sup>

별과 별 사이의 도달할 길 없는 거리는 서울이 표상하는 현실적 지배논리에 의해 생긴 훼손에서 기인한, 주체의 본래적 지향 가치와 현실적 행동 양태 사이의 거리이기도 하다. 또 그것은 주체의 타자애의 진정한 합일, 타자애의 지향이 불가능함에 대한 절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나의 자기성과 타자의 타자성은 결코 상대화될 수 없는 절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인격은 다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격은 어떤 명목으로도 전체화될 수 없기 때문에 타자의 타자성을 통한 존재의 초월은 책임을 수반한다.<sup>40)</sup>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이 주체의 자기 동일성의 확장욕으로 인해 완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이 스스로 전제적 존재론을 포기하지 못함에 있음을 아는 까닭에, 윤희중은 무진을 떠나면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3-3. 타자성 지향의 주체 -〈서울의 달빛 0章〉

레비나스에 따르면, 나로 환원될 수 없는 타자를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체험은 에로스이다. 사랑은 타자를 나의 욕구와 쾌락의 대상으로 소유하는 것이자, 사랑하는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sup>41)</sup> 그는 또 에로스를 다른 곳에서의 현전에 의해 촉발된 여기서의 결핍<sup>42)</sup>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성적인 것(le femininity)’은 이론적 인식을 통해 접근될 수 없는 타자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類 안에서 두 鍾의 대립으로, 순전히 그리고 단순하게 포섭되지 않는 타자성이 곧 여성성이다. 相反된 것에 대해 완벽하게 상반된 것, 그 상반성이 그 자신과의 상관자를 통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남아 있도록 허용하는 상반성, 그것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여성성이다.<sup>43)</sup> 또한 여성성은 내면으로의 전향, 집과

39) 김승욱, 앞의 작품, pp.338~339.

40) 강영안, 『향유와 거주: 레비나스의 경제론』, [문학과 사회](1995.겨울), pp.153-6.

41) 레비나스, 앞의 책, pp.103~111.

42) 빈센트 데공브,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1990) p.39.

거주의 내면성의 조건이기도 하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여성적 타자는 현실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여자'일 필요는 없다. 이는 내면으로의 전향과 거주를 가능케 하는 타자의 친밀성, 주체를 수용하는 타자의 너그러운 환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타자와의 관계는 감추어진 것, 전적으로 타자적인 것의 발견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것의 현실적 발현태의 하나가 아이의 출산이다. 감추어진 것은 이제 그 익명성에서 해방되어 이름이 주어지고 구체적인 얼굴을 가진다.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 나와 타자 사이에 일어난 분리와 결합의 끊임없는 운동이 멈추게 된다. 나는 아버지가 됨으로서 나의 이기주의, 나에게로의 영원한 회귀로부터 해방된다. 자아는 이제 타자와 타자의 미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다. 시간은 아이를 통해 다시 젊어지고, 푸르름을 띠게 된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미래와의 관계를 생산성(비옥성)이라 불렀다.

이러한 설명방식에 따르면, 부채하는 타자를 찾는 에로스의 추구는 주체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초월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김승옥의 작품에서 성욕과잉이나 여성에의 탐닉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 김승옥의 〈사리디아시스-제1장 인식해 본 열다섯 개의 固定觀念〉(『散文時代』, 제5호, 1964.10)에서 사리디아시스는 이상적으로 성욕이 강한 남자를 상징한다. 소설가 지망생인 '나'는 돈도 재물도 없는 인물이지만 정열만은 남아 있다. 지금 김노박의 사진을 벽에 붙이려 하는 '나'는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 '던적스러운' 정열만은 남아 있는 인간이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동면성의 섹스뿐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즉, 사리디아시스는 에로스를 통한 타자와의 합일을 강하게 열망하고는 있으나, 가난과 無能이라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존재이다.

김승옥에게 제1회 이상 문학상을 안겨준 〈서울의 달빛 0章〉(『문학사상』, 1977.7)에서도 타자성의 실현은 순조롭지 못하다. 대학 강사였던 '나'는 아내와 이혼 후, 강사생활도 그만두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다. 나는 3개월 동안 60명 이상의 여성과 관계했으며, 고급 승용차 '레코드' 신형을 구입하는 등, 방탕을 넘어서 자기 학대의 길로 들어선다. '나'는 텔레비전 텔런트 '한영숙'을 비행기 안에서 만나 결혼했으나, 신혼여행 중에 신부로부터 성병을 옮겨 받는다. 그 후 나는 친구들과 찾은 술집에서 호스티스들과 함께 나온 아내를 만난다. 그 때문에 나는 아내와 이혼했다. 이혼 직후 '나'는 아내의 대용물로,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색의 신형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나는 방탕한 생활을 접고자,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통장을 만들어, 신형 레코드를 끌고 옛날 아내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꿈꾸며 방송국으로 찾았으나, 아내는 내가 준 통장을 찢음으로써 '나'에 대한 부채감을 없애려 한다. 나는 아내와의 완전한 결별을 느끼며 절망한다. 이것이 이 작품의 줄거리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 김승옥은 197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 물결 속에서 발양하기 시작한 물신숭배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주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작품은 에로스를 통한 존재의 초월에 이르고자 한, 주체의 주체할 수 없는 갈망과 그 실현 과정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서울의 달빛 0章〉의 '나'는 에로스를 통해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그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무진기행〉의 음습한 주체

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신혼여행에서의 사건 후 “부부란 함께 (성)병을 고치기 위해 만난 남자와 여자다”라는 자학적이고 냉소적인 인식의 소유자로 변한다. ‘나’는 한때 ‘아이’라는 神을 발견하고 “신이 없는 두 꼭지점만의 남자와 여자의 이기적인 사랑”을 끝내고 아이라는 神을 정점으로 한 삼각형의 안정된 구도를 실현시킴으로써 아내라는 타자와의 새로운 합일을 꿈꾸기도 했었다.<sup>44)</sup> 하지만 아내는 많은 인공유산 경험으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임이 드러난다. 캘린더 촬영을 간다고 했던 아내를 술집에서 만난 나는 아내를 증오와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다. 아내가 자신의 행위를 고백해 주기를 바라는 나의 열망까지 좌절되었을 때, 나는 아내에의 증오를 삭히기 위하여, 또한 그러한 상태에 처한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편력에 나선다. 그러한 자신을 나는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이전의 나는…… 어느 시점에서 영화의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서 지나가 버린 시간의 땅 위에 남겨진 채고, 나 자신에게조차 낯선 나만이 낯선 여자들과 함께 가까워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캄캄한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 어두운 바다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서 상투적이었다. 타인끼리만 지키는 캄캄한 법칙의 바다였다. 그런 바다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위험했다. 육지도 없이 바다의 부력에만 존재를 맡기고 떠내려가는 자가 변화를 시도하려면 물 속 깊이 빠져 버리는 수 밖에 없다. 바다 밑에서 만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의 그것은 죽음일 것이다. 캄캄한 부력은 그런 위험한 시도로부터도 나를 떠받치고 있었다.<sup>45)</sup>

주체에게 있어 타인의 얼굴(현현)은 나의 무한한 자기 보존 욕구에 도덕적 한계를 설정하게 해 준다. 타인의 타자성은 타인의 존재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로서 자신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타인은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침입자가 아니고 오히려 나를 내면성의 닫힌 세계로부터 밖으로의 초월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자아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타자로부터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스스로 개별적인 자기성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주체성은 타인의 존재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타인과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sup>46)</sup> 他者性を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윤리적 요청의 문제이므로, 거기에는 개인적 주체의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章>에 등장한 개인의 모습은 건강한 타자성의 실현이 지난했던 1960년대 한국사회를 비추는 풍속도의 부분화라 할 수 있다.

#### 4. 글을 마치며

이 글은 레비나스의 주체 인식론에 기대어 김승옥의 대표작을 주체의 형성과정과 타자성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해 본 것이다. 그 결과 김승옥 소설이 발견한 개인은 타자와의 합일을 통해 존

44) 김승옥, <서울의 달빛 0章>, 『문학사상』(1977.7) p.412.

45) 김승옥, 앞의 작품, p.413.

46) 강영안, 『레비나스: 他者性的의 哲學』, 『철학과 현실』, 철학 문학연구소 편, (1995.여름) pp.159~160.

제의 초월을 갈망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 1964년 겨울>에서 <무진기행>을 거쳐 <서울의 달빛 0章>에 이르는 도정에서 김승옥의 소설이 발견한 개인성의 의미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신체적 존재자(의식 주체)가 의명적 존재 사건으로부터 출현하여, 홀로서기의 주체화를 거쳐 타자와의 관계맺기를 통한 초월(자기 전체성의 극복을 의미)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타자를 향한 열망은 끝내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의 꺾인 묘사로 인해 그의 문학은 개인 주체의 타자에의 지향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라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김승옥 소설이 발견한 '개인'의 성격에 대해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존재의 多元性を 인식해 가는 도정에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진정한 삶의 부재로부터 부단한 초월을 꿈꾼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이란 '존재'에서 '존재자'로의 이행, 그리고 '존재자'에서 '타자'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김승옥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체로 그러한 과정의 실현에서 실패하고는 있지만, 작가는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현대문명 속에서의 이기적 개인들이 타자로의 비월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타적 개인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주체들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는 데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 □ <참고문헌>

### 1차 자료

- 김승옥, <霧津紀行>, 『恩想界』(1964.10)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恩想界』(1965.6)  
 김승옥, <서울의 달빛 0章>, 『문학사상』(1977.7)  
 散文同人 편, 『散文時代』(가희출판사, 1962)

### 2차 자료

- 강영안, 『레비나스철학에서 주체성과 타자』, 『후설과 현대철학』, 한국현상학회 편, (서광사, 1990)  
 \_\_\_\_\_, 『레비나스 他者性的 哲學』,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편, (1995. 여름)  
 \_\_\_\_\_, 『존재, 주체, 타자-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관하여』, 『세계의 문학』(1992. 겨울)  
 \_\_\_\_\_, 『향유와 거주: 레비나스의 경계론』, 『문학과 사회』(1995. 겨울),  
 김승옥, 『"산문시대"이야기』, 『한국현대문학전집 38』(삼성출판사, 1978)  
 김윤식, 정호웅, 『4.19체험과 그 소설적 변용양상』, 『한국소설사』(예하, 1993)  
 김치수, 『反치主義 文學과 그 傳統』, 『한국소설의 공간』(열화당, 1976)  
 \_\_\_\_\_, 『6.25와 소설의 내적형식』, 『우리소설과의 만남』(민음사, 1986)  
 \_\_\_\_\_, 『60년대 소설의 특질-김승옥론』, 『김윤식문학평론집』(문학사상사, 1991)  
 김학균,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화자의 성격 연구』, 서울대 석사, 1999.  
 김 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현대문학』, 1966.3) 『김현문학전집2』(문학과 지성사, 1991)  
 \_\_\_\_\_, 『김승옥론-존재와 소유』, 『한겨레』, 1988)

- 류보선, 「개인과 사회의 대립적 인식과 그 의미」, 『한국현대작가연구』(문학사상사, 1991)
- 문홍술, 「이상문학에 나타난 주체분열과 반담론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91)
- 박선부, 「모더니즘과 김승옥 문학의 위상」, 『비교문학』제7집, (한국비교문학회, 1982.12)
- 박진영, 「김승옥 소설의 주체 구성 연구」, 고려대 석사, 2000.
- 류승렬, 「김승옥의 “무진기행”연구」, 『국문학연구』(1985)
- 염무웅, 「5, 60년대 남한문학의 민족문학적 위치」, 『창작과 비평』(1992. 겨울)
- 안혜련, 「김승옥 소설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전남대 박사, 1999.
- 유종호, 「김수성의 혁명」, 『아세아』, 창간호, 1969.
- \_\_\_\_\_, 「슬픈 도회의 어법」, 『한국소설문학대계 45』(동아출판사, 1995)
- 이봉래, 「신세대론」, 『문학예술』(1956.4)
- 이어령, 「우상의 파괴」, 한국일보 (1956.5.5)
- \_\_\_\_\_, 「민족적 특성과 인류적 보편성」, 『문학예술』(1958.8)
- 이은정, 「한국현대소설에 있어 ‘도시성’에 관한 연구」, 『이화어문논집』(1982)
- 이정란, 「김승옥 소설의 서술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87.
- 이정숙, 「김승옥 소설의 소통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 2004.
- 이호규, 「1960년대 소설의 주체생산 연구」, 연세대 박사, 1999.
- 전혜자, 「현대소설의 도시성 분석- 이효석과 김승옥」, 『경원대논문집』제3집(1985)
- 정현기, 「문학비평의 충격적 休止期」, 김윤식·김우중 외,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 1989)
- \_\_\_\_\_, 「안개의 수군거림과 愛慾의 시대를 지켜본 작가」, 『오늘의 한국문학 33인선』(양우당, 1989)
- 진정석, 「글쓰기의 영도」, 『문학동네』, 1996. 여름.
-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 석사, 2002.
- 천이두, 「존재로서의 고독-김승옥“서울 1964년 겨울”」, 『문학과 시대』(문지사, 1982)
- 한상규, 「환멸의 낭만주의-김승옥론」, 『1960년대 문학 연구』(예하, 1993)
- 한혜원, 「김승옥 소설 연구:공간과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 1998.
- 황주환, 「김승옥 소설 연구」(계명대 석사논문, 1994)
- 유진 린, 김병익 역, 『마르크스주의와 모더니즘』(문학과 지성사, 1986)
-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문예출판사, 1996)
- 빈센트 데퐁브,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현대프랑스철학(1933-1978)』, (인간사랑, 1990)

〈Abstract〉

## A Study on the Persona in Novels by Kim Sung Ok

Mee-young, Kim

The innovative gist of the novels written by Kim Sung Ok lies in the discovery of a new persona and the revolution of sensitiv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lications of the persona that Kim discovered in his novels based on the theory of subjectivity of Levinas. The personas in Kim Sung Ok's novels that arguably represent 60's of Koreans literary community show the transformation from the nihilistic beings to the capitalist beings. In other words, the personas that Kim found in his novels purely represent the severed beings that had to move down to the economic and political ground from the war-haunted beings.

Ultimately the personas of Kim's novels develop into ones pursuing for the transcendental beings by converging with other beings. His literary journey from "*Seoul, 1964 Winter*", "*Travel to Moo Jin*", to "*Moonlight Seoul, Chapter 0*" reveals the writer's transcendence from personal, anonymous self, to self-standing self, and finally to self-achieving self by making relations with other beings. In sum, the personas found in Kim's novels can be said as a becoming being towards ontological diversity. These personas keep trying to transcend from vagueness of lives. Transcending, in this context, means a journey from being-what to being-who.

The characters in Kim's novels never enjoy successes in this journey. However, by the incessant failures of the characters, the writer tries to demonstrate the never-ending zeal of egoistic individuals towards and for other beings-in-the-world. In this respect, a conclusion can be drawn that the primary purpose of Kim Sung Ok's literary works is to overcome the sarcasm and despair of post-war era of 1960s and to construct a 'transcending, subjective being' that pursue for the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1970s.

Key words: Kim Sung Ok, "San-Moon-Si-Dae", persona, existence, subject, the other,